

정청래 출마 놓고 친명·친청 격돌...18일 '분수령'

이 대통령 귀국 후 당권 교통정리 여부 주목 2028 총선 공천권 걸린 전대 앞 계파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친명(친이재명) 계와 친청계 간 대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명계 비당권파는 6·3 지방선거 실패론을 들어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 대표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고 어록을 인용하며 전면 충돌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을 놓고 확산 중인 여권내 갈등은 오는 18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표정이 분

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함께 실현할 시대적 책무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한 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로.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있었다. 우리

는 이들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다시 꽃피워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지역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뭉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칭송한 데 대해 이어 이날은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큰 그릇'을 제기했고, 지난 13일에는 순방 중에도 "여당의 열정은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책임 정치에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가 지난 9일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과 맞물려 당내에서는 차기 대표에 대한 명심(明心·이 대

령의 의중)이 김민석 총리에게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친청계 일각에서는 당무 개입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따라서 정 대표가 이날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을 강조한 것은 비당권파와 친명계에서 나온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돌파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정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하더라도 순방 이후가 될 것'이란 의미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며 "보통 제가 정

대표의 책임감이라 할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의 표정에 따라 사실상 당내 계파갈등이 갈릴갈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마중을 나올지 여부와 이 대통령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 결과가 차기 당권에 대한 교통정리를 확정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교통정리가 불발되고 정 대표가 이날 이후 연일 도전을 공식화한다면 여권 수뇌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여당 내 갈등은 당분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돼 사실상 친청 및 친명계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생

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친명계는 친청계는 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계 인사들 움직임까지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계급 이후 국면에서는 정 대표 같은 결단력과 강인함이 필요했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과 민생을 함께 다루는 정치적 원숙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한 친청계 의원은 "정 대표가 이 대통령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의 총정을 국회의원들보다는 밑바닥 당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이 16일 전남 보성다빈치콘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텃밭 당심 잡아라... 김민석·송영길은 나란히 호남행

민주 전남광주시의원 당선인 워크숍... 권리당원 30% 집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당심이 차기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두 유력 당권주자의 지역 방문은 지방선거를 막 치른 광역의원 당선인 등 지역 기초 조직의 지지세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나주 빛가람 복합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8시경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찾았다.

송 의원은 이날 저녁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대 의회 원 구성, 의정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

하는 자리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안팎이 집중된 핵심 권역으로,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총리와 송 의원의 호남행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당권 주자들에게는 지방선거 직후 광역의원 당선인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향후 조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일정으로 지역을 찾지만, 워크숍 참석은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도 6월 말~7월 초 사퇴한 뒤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보결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 7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2박 3일간 전남·광주 일정을 이어간다.

송 의원은 오는 1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마지막 도정 보고 나선다

24일 이임식서 성과 발표... '전남 새로운 길 위에' 주재

민선 7·8기 전남도정을 이끌어온 김영록 전남지사(사진)가 이임식을 통해 지난 8년간의 도정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이임식을 개최한다.

김 지사는 행사에 앞서 집무실에서 환경·행정부지사와 강원원 경제부지사, 각종철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인수서에 서명한 뒤 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임식에서는 일반적인 퇴임사 형식에서 벗어나 김 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며 민선 7·8기 도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설명한다.

발표 주제는 '전남 새로운 길 위에'로, 약 1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취임 당시 제시했던 도정 목표와 전남 발전 전략을 되짚고, 지난 8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각종 지표와 사례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발표에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비롯해 농수산물 수출 확대, 국제행사 유치와 성공 개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등 민선 7·8기 핵심 성과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해상 풍력 확대, 에너지산업 육성, 우주항



공·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 과정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재임 기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통합의 필요를 주도해 왔다. 비록 더불어민주당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토대를 마련한 핵심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전남도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전라남도의 중궐이 아니라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며 "민선 7·8기 동안 이뤄낸 변화와 성과가 있었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도전도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섬 여행 가면 최대 10만원 행안부, 3600팀 경비 지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여름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16일 육지와 연륙·연도교로 연결되지 않아 여행객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섬 방문의 해'는 국내 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행객을 이용해 섬을 찾는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이다. 신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는 총 3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추경을 통해 선정된 3600개 팀이 지원을 받는다.

이성우·이현규 기자 solee235@

민주 전남광주통합시당 초대 위원장은 누구

안도걸·조계원 출마 예정... 8월 전당대회 전 조직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하나의 통합 시·도당 체제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앞서 초대 통합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 정비가 나설 계획이다.

16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 순회 시·도당 개편대회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시·도당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개편대회에서는 초대 통합 시·도당위원장도 함께 선출된다. 현재 광주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전남에서는 조계원(여수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중앙정부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며 당내 조직력을 바탕으로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추가 출마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역시 다수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대부분 도당위원장을 역임했거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의 인사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전남에서는 조계원(여수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시·도당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기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사무실을 분소 형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통합위원장이 전 제 조직을 총괄하고 실무 업무는 광주와 전남 사무실이 각각 분담하는 형태로, 세 부서 당 위원장을 역임했거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출마 가능성이 높고 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역 정치권 역시 하나의 조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협력과 지역 현안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도, 지역대학 앵커사업 1차 연도 평가 확정

앵커위원회 18개 대학 등급 심의·의결... 등급별 사업비 차등

전남도는 16일 도청 사재필실에서 2026년 제2차 전남앵커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를 열어 지난해 앵커사업을 수행한 18개 대학의 1차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앵커사업 수행대학은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역 산업혁신 활린지 △전문직업평생교육 허브센터 △초연결 공유헤움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5개 프로젝트, 52개 단위과제를 추진했다. 위원회는 전남앵커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자체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앵커사업 참여대학 18개교의 환류등급을 확정했다. 등급은 S등급 3개교, A등급 4개교, B등급 7개교, C등급 4개교다.

전남도는 확정 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별 우수 성과는 공유하고, 미진한 분야는 개선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도 8개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1차년도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S등급 2개교, A등급 4개교, B등급 2개교로 등급을 정했다. 검증된 우수 성과는 전남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앵커사업 재구조화와 연계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성과 중심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가 오는 7월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앵커사업 연차점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2명 규모로 구성된 위원회는 통합 초광역앵커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부의 5·3·3 특단위 공유대학 사업, 초광역 인재육성 사업 등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